

# 대한뉴스의 제주기록에 대한 고찰

김동만\*

## <차례>

- I. 머리말
- II. 국가 홍보매체로서 <대한뉴스>의 변천
- III.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 IV. 제주관련 대한뉴스의 선전 내용과 시선
- V. 대한뉴스의 제주기록과 일상사의 재현
- VI. 맺음말

## 국문요약

대한뉴스의 제주기록은 1954년부터 1994년까지 모두 107편이 남아있다. 이 영상기록은 제주의 정치, 행정, 산업발전, 제주의 옛 모습을 담고 있다. 대한뉴스의 제주기록은 비록 정부의 시선에 의해 기록되어진 영상이지만 제주에 대한 공식영상기록이라는 점과 약 반세기에 걸쳐 제주사회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거의 유일한 영상기록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영상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대한뉴스에는 국민을 설득하는 선전영화로 정부가 제주를 바라보는 시선과 국가 정책과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제주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보이길 원했는지에 대한 국가 이미지 선전 전략이 내포되어 있다.

제주영상기록들 중 가장 많은 내용은 산업경제 분야로 목축과 수산업, 감귤 산업 육성에 대한 부분과 도로개통, 전기가설 등 근대화를 이루는 과정, 관광산업 개발의 과정 등이 시각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외에도 제주의 축제와 일상사도 소개되고 있다.

---

\* 제주한라대학 방송영상과 교수

제주관련 대한뉴스에 나타난 대표 이미지는 10년 주기별로 구분 했을 때 시대별로 천지연폭포-> 정방폭포-> 한라산-> 한라산-> 유채꽃으로 옮겨 간다. 산업적 대표이미지는 1950년대 : 목축-> 1960년대 : 수산업-> 1970년대 : 감귤-> 1980년대 : 감귤-> 1990년대: 유채꽃(관광)으로 변화된다. 이를 통해 시대별 정부의 제주시책을 엿볼 수 있다. 창출된 이미지는 정부의 시책홍보에 작동하고, 결론적으로는 제주의 지역성을 규정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기여 했다. 대한뉴스의 수용자였던 일반국민들에게도 제주에 대한 고착화된 이미지는 제주지역성을 규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더불어 대한뉴스의 제주기록은 의도되지 않은 정보들로 하여금 뜻밖의 제주의 옛 모습을 찾을 수 있어 제주반세기의 일상사를 재현하는데 중요한 자료적 의미를 갖고 있음도 확인된다. 50~60년대 농촌마을의 풍경과 제주의 전통적인 어로작업, 해녀들의 모습은 시대의 변화상을 느끼게 한다. 초창기 한라문화제 모습과 탐라미인들이 꽃수레 시가행진, 뉴스에 등장하는 거리의 모습과 사람들, 복식과 차량도 흥미롭다. 이들 정보는 지나간 제주현대사의 일상을 재현하는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주제어 : 대한뉴스, 제주기록, 영상기록, 이미지, 지역성, 일상사, 재현

## I. 머리말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제주학 연구의 진전에 따라 영상기록이나 시각 자료를 활용한 영상역사학이나 영상민속학, 영상사회학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제주의 옛 사진집이 다수 출판되고, 의미 있는 옛 사진전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이를 자극하는 한 요인이다.

최근 영상기록에 대한 연구는 단순한 보여주기에서 고증과 분석을 통한 사회과학적 연구로 진행되고 있다. 한 장의 기념사진을 통해 당 시대의 의복이나 일상사의 재현은 물론, 인물들의 자세, 표정, 위치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통해 가족 내 권력구조변화까지 읽어내는 분석방법론까지 등장하고 있다. 또한 과거 영상기록들은 공식적 사료와 관련하여 역사의 공백을 메우는 한편 새로운 역사적 증거자료로 제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당시의 사회상과 시대상을 잘 보여 주는 영상자료는 텍스트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오랫동안 역사학자들에게 관심 밖이었고, 주목받지 못했다.

김기덕은 『우리인문학과 영상』(푸른역사, 2002)에서 영상역사학, 영상민속학, 영상인류학, 영상고고학 등 인문학 5개의 분야에서 문헌자료를 넘어 영상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해석을 이끌어내야 함을 강조했다. 정근식 역시 『식민지의 일상사 연구와 기록영상의 활용』(한국영상자료원, 2006)에서 한국근현대 일상사 연구의 진전을 위해서는 시각적 자료의 엄밀한 분석에 입각한 영상연구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며 학문적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영상 중심적 연구의 흐름은 제주의 사회·문화적 현상을 이해하고 제주의 근현대 일상사를 재현하는 제주학 연구 분야에 영상기록을 활용한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1953년부터 1994년까지 제작된 대한뉴스 중 제주관련 영상기록(news reel)<sup>1)</sup>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한뉴스 제주기록의 형식적 특징과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제작자인 정부가 바라보는 제주의 대한 시선은 무엇이고, 영상이라는 재현방식을 통해 국민들에게 제주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보이길 원했는가? 지난 반세기 동안 정부는 시각적으로 표출하는 선전 전략의 일부로서 제주를 어떻게 영상으

1) 뉴스를 취재 수록한 영화 필름으로 당대에 발생하는 사건들을 필름에 담은 영상기록의 일종이다. 이러한 시네 저널리즘은 영화의 탄생과 더불어 시작되었으며, 거의 모두가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실제 사건을 기록한 것들로 영화나 방송에서 상영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로 기호화 하고, 지역성을 규정해 왔는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더불어 제주근현대사의 일상사 재현을 위한 대한뉴스의 자료적 가치를 찾는 것 역시 또 다른 관심사이다.

대한뉴스는 정부가 제작하여 영화관에서 상영했던 정부홍보영상으로 지난 1953년 이후 한국사회의 주요한 정치, 경제 및 사회현안을 기록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제주모습은 다양하게 영상으로 기록되고 영화관에서 뉴스로 노출되었다. 대한뉴스는 다양한 사건과 사실을 바탕으로 국가의 방향과 정책을 홍보하는 한편 국민을 설득하는 선전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뉴스 제작과정에서 제주의 모습은 정부의 시선에 따라 선택되어 촬영되고 편집되었다. 이를 통해 제주는 특정 이미지로 기호화 되었고, 직간접적으로 지역성이 규정되어 왔을 것이다. 대한뉴스의 수용자였던 일반국민들에게도 제주에 대한 고착화된 이미지는 제주를 규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점에서 대한뉴스의 제주기록은 사건과 사실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사료이자, 정부가 제주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보이길 원했는가가 담겨있는 영상자료로서 의미를 지닌다. 대한뉴스의 제주기록은 비록 정부의 시선에 의해 기록되어진 선전영상자료라는 한계를 지니지만 제주에 대한 공식영상기록이라는 점과 약 반세기에 걸쳐 제주사회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거의 유일한 영상기록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영상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 II. 국가 홍보매체로서 <대한뉴스>의 변천

대한뉴스는 1953년부터 1994년까지 40년에 걸쳐 총 2040호가 제작

되었다. 대한뉴스는 정부의 국정시책과 주요행사를 기록하고 정책을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정부기관(공보처)에 의해 제작된 국정홍보뉴스이다. 대한뉴스는 국가의 재원으로 정부조직인 공보실<sup>2)</sup>에서 직접 제작 운영하는 형태로 보았을 때, 국영방송제도와 흡사하다. 즉 대한 뉴스는 국가의 엄격한 통제아래 대중동원과 선전을 하는 뉴스보도물의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대한뉴스는 사실의 전달과 공익성 추구라는 뉴스의 기능보다는 국가지도자의 역량을 부각시키고, 조국 근대화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며, 다양한 의식계몽캠페인을 선전, 혹은 유사선전의 범주에 든다고 할 수 있다.

대한뉴스의 뿌리는 1940년 초 일본식민지기 조선총독부가 조선인들에게 부일협력을 독려하고 전쟁의 정당성을 홍보하기위해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를 통해 제작한 『조선시보(朝鮮時報)』로 거슬러 올라간다.<sup>3)</sup> 조선시보는 해방 후에도 한동안 제호를 유지한 채 제작되었으며,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공보처에 영화과가 발족되면서 『대한전진보』로 개명되어 제작되었다. 부정기적으로 평균 월 1회 정도 제작되던 『대한전진보』는 한국전쟁으로 제작이 중단되었다.

이후, 임시수도인 부산으로 후퇴한 공보처는 1953년에 와서 『대한전진보』를 『대한뉴스』로 개명하여 16mm 흑백필름으로 뉴스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이시기 대한뉴스는 중군기자를 전장에 파견하여 전승을 홍보하는데 주력하였다. 이 시기에 제작된 『대한뉴스』 중 1호부터 21호까지 뉴스원판은 서울 환도과정에서 분실되었다. 1953년 6월부터 제

2) 대한뉴스는 1953년 공보실 선전국 영화과에서 제작하다 1961 문화공보부산하 국립영화제작소로 개편하여 제작하여왔다.

3) 한국영상자료원에는 1943년에 제작된 조선시보 11호가 보관되어 있다. 조선인들에게 침략전쟁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과 ‘견인지구(堅引持久)’의 정신을 배양할 것을 강조한 전쟁 홍보영화로 제작 형식과 스타일 모두가 대한뉴스와 비슷하다.

작된 22호 이후 모든 원판 필름은 현재 국가기록보존소에 보관되어있다. 1954년에는 뉴스제호를 『대한뉴스』로 개명하였고, 1957년부터는 주 1편씩 정기적으로 제작하여 1959년까지 모두 245편이 제작되었다. 1950년대의 대한뉴스는 전후복구와 반공주의 확산, 국가체제 확립, 미국의 원조와 동맹체제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동향과 국가재건의 이념을 설파하는데 주력하였다.

1960년의 265호부터는 한글표기법에 따라 『대한뉴스』에서 『대한뉴우스』로 개명하는 한편, 1961년에는 공보부 산하 국립영화제작소를 신설하여 뉴스제작시스템을 한층 강화 하였다. 1978년의 1214호부터는 『대한뉴스』로 개명하였다. 박정희 군사정부가 들어섰던 이시기 대한뉴스는 경제건설, 새마을운동, 생산독려, 국가발전 등의 경제대국 홍보의 역할을 담당한다. 1980년대 들어 대한뉴스는 70년대 노골적인 유신체제에 대한 홍보에 대한 비판과 텔레비전과 신문이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보도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판단아래 대한뉴스를 잠시 폐지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1980년 3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는 『카메라순보』라는 제호로 대체하여 월 2편이 제작되기도 하였다. 이도 잠시 6월부터는 다시 『대한뉴스』로 개명·환원되어 지속적으로 제작하였다. 이시기 대한뉴스는 여전히 정부의 시책을 홍보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지만 관공과 문화, 스포츠 분야 등에 뉴스분야도 대폭 늘었다. 하지만 대한뉴스는 1994년에 제작된 2040호를 마지막으로 폐지되었다.

대한뉴스의 폐지이유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관제홍보에 의한 국민들의 외면과 영화법 제27조<sup>4)</sup>에 따른 강제적

4) 영화법 27조는 “공연자가 극영화를 상영할 때는 문화영화와 뉴스를 동시에 상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규를 어길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영화진흥법이 제정(1995. 12. 30)됨으로써 법적규정은 폐지되

상영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고조, 둘째, 텔레비전 등장으로 인한 유일한 영상보도매체로서의 가치 하락, 셋째, 일주일 이상 늦은 뉴스를 상영함으로써 뉴스 본연의 기능마저 잃어버린 것이 폐지의 주원인 되었다.<sup>5)</sup>

국민들의 외면으로 막을 내린 대한뉴스는 국정 홍보뉴스라는 비판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영상자료의 관점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첫째, 총 제작 편수 2040호, 편당 하위뉴스 클립 총 12,703 편, 약2만 분이라는 방대한 대한민국의 영상기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sup>6)</sup> 영상자료의 비판적 해석을 통한 한국현대사 재현의 측면에서 보면 국보급에 비견되는 역사자료의 가치를 지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둘째, 대한뉴스는 근대적 산물로 기술한 ‘한국국가권력의 기록’으로 ‘조선왕조기록’에 비견할 만하다는 점이다. 대한뉴스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동향과 더불어 현대사의 주요 인물과 사건을 연대기적, 시각적 기술 방법에 따라 기록되고 있다.

셋째, 대한뉴스는 TV의 등장과 확산이전 기간 동안 총체적 뉴스 영상기록 자료로는 유일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한국의 텔레비전은 1961년 KBS개국을 시작으로 1964년 TBC, 1969년 MBC가 개국하였다. 그러나 초창기 영상기록의 활성화되지 못한 점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1953년에서 1970년에 이르기까지의 국내 영상기록 자료로는

있다. 김동호 외, 『한국영화 정책사』, 나남출판, 2005, 312쪽.

5) 허은광, “대한 뉴스의 인천기록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인천학연구』, 제8호, 인천학연구원, 2008, 283~284쪽.

6) 대한뉴스에 대한 관리와 영상 서비스는 이원화되어 있다. 국립문서기록보존소에서 원판뉴스 관리와 보존을 담당하고, 자료서비스는 대한뉴스를 제작했던 국립영화제작소의 후신인 한국정책방송원 KTV에서 디지털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대한뉴스 폐지 직후 1995년에 설립된 KTV는 케이블방송과 인터넷, 위성TV를 통해 국정홍보를 담당하고 있다.

독보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으로 갈수록 두드러져 제주 지역인 경우 1975년 이후까지 영상기록의 공백기에 해당한다.

넷째, 대한뉴스는 중앙정부 시각에서 본 지방의 모습이 담겨 있고, 지방의 다양한 일상사들이 기록되어 점에서 지방사회 구조와 현대사를 재현하는 자료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 Ⅲ.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대한뉴스의 제주기록은 지난 시기 제주의 사회문화적 현상을 이해하고 과거를 재현하는 역사적 자료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뉴스의 속성상 특정한 사건과 사실을 바탕으로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사실적인 기록,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편견 없는 기록으로 받아들여 질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뉴스기록은 생산자의 의해 의도 되어진 기록, 재생산 되어진 이미지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미지의 생산은 생산자의 가치인식과 역사인식, 이데올로기에 따라 선택되고 강조 되어 생산되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대한뉴스의 제주기록 역시 국정홍보라는 의도 된 목적에 의해 특정의 시선에 따라 재현된 이미지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대한뉴스의 제주기록의 자료적 가치와 의미를 파악하는 초보적 논의의 수준에서 뉴스 생산자인 정부의 이미지 전략과 시선, 제주의 이미지 상징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 제주관련 대한뉴스에 나타난 이미지 전략과 선전 형식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 연구문제 2 : 대한뉴스의 제주기록의 주요 선전내용은 무엇이고, 제주의 상징이미지는 시대별 어떤 변화상을 보이는가?
- 연구문제 3 : 대한뉴스에 투영된 정부의 시선은 무엇이고, 국민들에게 제주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보이길 원했는가?
- 연구문제 4 : 대한뉴스의 제주기록에서 발견되는 우연한 일상시는 어떤 것들인가?

## 2.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 자료는 1953년부터 1994년까지 40년에 걸쳐 제작된 대한뉴스 총 2040호(현존 2019호), 하위 기사 클립 12,703 중에서 추출한 제주관련 뉴스기록 109편의 클립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인 제주기록 동영상자료는 국립영상제작소에서 1994년에 편찬한 대한뉴스목록 1집(1953~1979) 및 2집(1980~1994)에 대한 자료검토와 한국정책방송 KTV의 웹 사이트의 주제어 검색을 통해 추출했다. 109편의 제주기록은 화면과 음성모두 손실 없이 한국정책방송 KTV에 잘 보존되어 있어, 109편 모두 입수하여 직접분석을 실시했다. 다만 후속연구에서 제주관련 영상기록은 추가적으로 발굴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일부 제주관련영상기록이 누락될 수 있음을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 2) 구성요소 및 내러티브 분석방법

시기별 내용별 분석을 위해 영상자료의 구성요소에 대한 분석과 화면과 내레이션을 종합한 내러티브 분석을 통해 제주기록의 형식과 내용을

분석하였다.

영상기록은 크게 시각(영상)과 청각(음향)의 조합을 통해 구성된다.

마이클레비거(michael rabiger, 1992)는 다큐멘터리나 뉴스 등의 영상기록의 구성요소를 다음과 같이 구성했다.<sup>7)</sup>

영상 구성요소는 1) 촬영화면, 2)자료화면, 3)대화장면 4)인터뷰, 5)재연, 6)스틸사진, 7)CG, 8)빈 화면 등으로 구분했고 음향 구성요소는 요소는 1)해설, 2)보이스오버, 3)동시녹음, 4)음향효과, 5)음악, 6)침묵 등으로 구분했다. 영상기록 즉 뉴스나 다큐멘터리는 이러한 영상과 음향 요소들이 일부 또는 전부로 이루어진 순열이다. 구성요소에 대한 분석은 음성정보와 영상정보의 상호연관성을 파악하는데 효율적이다.

제작자 시선과 동기를 검토하고 뉴스가 의미하는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영상과 해설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러티브 분석을 진행하였다.

제작자의 시선과 동기는 대부분의 기록영상이 생산자의 의해 의도되어진 기록, 재생산 되어진 이미지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영상의 선택과 목표를 부여하는 것은 제작자(연출자)의 관점과 구조다. 나아가 사회의 권력구조, 문화, 제작관행, 표현관습, 수용자의 인식 수준 등 여러 요인들이 개입되어 형성된다.

영상기록의 구성요소들은 편집, 조작의 과정을 거치고 그곳에 음향이 입혀지고, 내러티브에 따라 구조화되어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하나의 시퀀스(통합소)로 새롭게 태어난다. 실제로 이렇게 결합되어 완성된 시퀀스는 형식뿐만 아니라, 내러티브 구조상 어느 부분에 배열하느냐에 따라, 컷의 속도에 따라, 음향의 결합형식에 따라 의미하는 바가 서로 다

7) 조재홍, 홍형숙 옮김, 마이클레비거 지음 『다큐멘터리』, 지호출판사, 1997, 65쪽.

르게 나타므로 통합적 해석이 필요하다. 내러티브 분석은 영상자료의 특성상 분석이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 더불어 <연구문제2>와 <연구문제3>의 문제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연구대상 109 클립에 대한 10년 단위의 시대별 분류와 6개 주제별 번호 매김을 한 후, 뉴스아이템에 대한 코딩을 실시하고 엑셀작업을 통해 빈도를 분석했다.

### 3) 기호학적 분석과 미장센분석

이미지 고착화 과정에서 정부가 제주를 어떻게 영상기호화하고, 기호들의 통합체를 통해 제주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바라보이길 원했는가? 라는 <연구문제2>와 <연구문제3>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영상기호학적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하나의 쇼트를 기본단위로 하여 화면 속에 등장하는 기호학적 요소들을 추출했다. 대한뉴스의 제주기록 속에 등장하는 영상기호 또는 약호(codes)는 지역상징 약호, 산업적 약호, 시간적 약호, 공간적 약호, 문화적 약호들이 다양하다. 이들 주요 영상기호의 추출은 지배 이미지, 등장빈도, 내용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코딩하고,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미지들을 추출하였다. 이들 기호들은 ‘한라산 이미지’는 곧 ‘제주’라는 독자적 기호로 작동하기도 하고 ‘유채꽃+종려나무+호텔’ 등이 기호가 통합체로 작동하여 ‘이국적 관광지’라는 메시지를 형성하기도 한다. 최종적으로는 기호들의 통합소(SYNTAGMA)들을 통해 이들이 전달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를 분석하고 정부가 바라보고자하는 시선을 도출했다.<sup>8)</sup>

8) 이들 통합소는 일반적으로 ‘시퀀스’, ‘신’이라는 용어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로버트스탬은 통합소를 1) 자율적인 쇼트, 2) 평행통합소, 3) 괄호통합소, 4) 서술적통합소, 5)교차통합소, 6) 썸, 7)에피소드 시퀀스, 8)일상적인 시퀀스로 나누었다. (김병철외 옮김, 로버트 스탬의 지음, 『어휘로 풀어보는 영상기호학』, 시각과 언어, 2003, 79쪽.

대한뉴스의 제주기록이 제주사회의 일상사를 재현을 위한 자료적 가능성을 파악하는 방법론으로는 미장센분석 방법을 적용 했다. 의도된 영상뿐만 아니라 프레임 안에 숨겨져 있는 의도되지 않은 정보를 파악하기에 유효하기 때문이다.

촬영의 대상물의 공간적 배치를 미장센이라 부른다. 미장센 분석은 시각적 요소와 공간적 요소를 분리하여 이들이 하나의 프레임 안에 어떻게 배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미장센 분석을 통해서 카메라의 위치와 접근양식, 대상물의 배치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미장센의 닫힌 구조와 열린 구조에 대한 분석은 영상자료가 ‘의도(연출)된 촬영’과 ‘의도되지 않은 촬영’인지를 구분하는데 중요하다. 닫힌 구조는 프레임이 등장하는 인물과 사물이 배치 등 제작자의 개입의 정도가 강한 것을 의미하며, 열린 구조는 우연히 촬영되거나 제작자의 개입이 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영상을 의미한다. 대한뉴스의 제주기록은 닫힌 구조가 우위를 차지하지만, 열린 구조 역시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미장센 분석은 제작자의 동기와 목적, 이데올로기를 분석하는데도 유효하다. 이러한 미장센 분석과 함께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영상해석을 위해 문헌과 기존연구를 연계한 연구를 병행했다.

#### IV. 제주관련 대한뉴스의 선전 내용과 시선

##### 1. 제주기록의 선전뉴스로서의 특징

커뮤니케이션 학자인 라스웰(Lasswell)은 “선전이란 의미 있는 상징적 기호의 조작을 통해 대중을 관리하는 조직적 기도”로 정의했고, 버네이스(Bernays)는 “근대 선전이란 공중과 기업, 이념이나 집단과의 관계

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을 만들거나 조성하는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노력”이라고 했다. 선전의 효과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차원의 형성, 강화, 변화를 통칭하는 아홉 가지 영역에 걸쳐 나타나며, 이입, 감염, 동일시를 통한 심리적 기능을 수행한다.<sup>9)</sup> 대한뉴스의 제주기록은 다음의 몇 가지에서 뉴스를 표방한 선전물의 특징을 지닌다. 첫째, 대한뉴스의 제주기록은 국가의 엄격한 통제아래 정부조직에 의해 제작된 뉴스보도물의 형태의 선전적 특징을 지닌다. 대한뉴스는 국가의 재원으로 정부조직인 공보실<sup>10)</sup>에서 직접 제작 운영하는 형태로 보았을 때, 국영방송제도와 흡사하다.

둘째, 대한뉴스의 제주기록은 ‘얼굴이 없는 화자’, 즉 내레이터 전달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전형태를 띤다고 볼 수 있다. 뉴스의 수사학은 화자(rhetor), 즉 기자 또는 얼굴의 등장하는 아나운서의 해설로 이루어진다. 내레이터의 모호하고 피상적인 위상은 저널리즘으로서의 정체성을 현저하게 약화시키고 있다.

셋째, 반대의 소리를 포함하는 비판의 결여는 정보의 일방적 주입과 계몽이라는 선전적 특징을 지닌다. 국가정책의 부작용이나 실패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넷째, 집단적 행동에 소실된 사적인 개인을 들 수 있다. 대한뉴스의 제주기록에는 개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드물며, 그나마 개인이 등장하는 경우도 새마을 유공자 표창등과 같이 국가 정책에 부합하는 집단 이데올로기의 아이콘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섯째, 제주기록의 시각(영상)과 청각(음향)의 구성요소의 조합 역

9) 원우현, 『여론 선전론』, 서울: 법문사, 1986.

10) 대한뉴스는 1953년 공보실 선전국 영화과에서 제작하다 1961 문화공보부산하 국립영화제작소로 개편하여 제작하여왔다.

시 <표-1>에서 보듯이 홍보영상이나, 선전영상의 구성요소의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인터뷰 방식을 채용하지 않는 점, 현장감, 사실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현장음을 상당수 배제하는 점 역시 홍보용 영상기록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표-1> TV뉴스와 영상홍보물 구성요소비교

구성요소	TV 뉴스	영상홍보물	대한뉴스
촬영화면	연속적	비 연속적	연속적
인터뷰	사용	최소사용	사용 없음
CG	빈도 낮음	빈도 높음	빈도 낮음
해설	기자,아나운서	해설자	해설자
현장음	활용도 높음	극히 낮음	극히 낮음
배경음악	낮음	높음	높음

이러한 점에서 제주관련 대한뉴스는 겉으로는 뉴스 형식의 띄고 있으나 사실의 전달과 공익성 추구라는 뉴스의 기능보다는 국가지도자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조국 근대화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며, 다양한 의식 계몽캠페인을 선전하는 프로파간다적 선전물 혹은 유사선전의 범주에 든다고 할 수 있다.

## 2. 대한뉴스의 제주기록 기사편수 및 기사형식

대한뉴스에서 제주기록은 106호 속에 109편의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대한뉴스 한호의 시간은 10분 내외로 호당 하위기사(클립)는 보통 6~11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10년 단위를 주기로 하여 연대별 기사수는

<표-2>와 같다.

<표-2> 연대별 대한뉴스의 제주기록 기사편수 및 빈도

기간	대한뉴스 제작 호수	전체기사 편수(A)	제주관련 기사편수(B)	제주기사 빈도%(B/A)
1953~1959	244	1693	7	0.41
1960~1969	513	3620	35	0.97
1970~1979	515	2888	24	0.83
1980~1989	509	3292	29	0.88
1990~1994	259	1210	14	1.16
계	2,040	12,703	109	0.86

자료: 국립영상제작소, 대한뉴스목록 1집, 2집, KTV 사이트(www.ktv.go.kr)

제주관련 뉴스의 빈도는 평균 0.86로 이승만 대통령 재임기간인 1950년대가 평균치 이하이며, 박정희 대통령 재임기간과 전두환 대통령 재임기간인 1960년~1980년대는 평균치를 기록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제주에 대한 관심과 시책이 뉴스빈도에 비례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1950년대 제주는 국가 시책에서 소외 지역으로 규정할 수 있다. 실제로 이승만 정부 시설 국영목장 건설이외에 성과를 보인 시책은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절대적인 비례로 보기에선 다수 무리가 있어 보인다. 1950년대인 경우 항공편과 선박교통이 발달하지 못한 부분도 뉴스 빈도를 낮추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반면 노태우·김영삼 대통령 재임기간인 1990년대가 평균치 보다 높게 나타난다. 90년대인 경우 제주 기사가 많은 것은 총 14건의 기사 중 5건이 ‘제주의 경관’에 대한 영상 화면 자주 소개되면서 기사빈도가 올라간 것으로 파악된다.

제주관련 대한뉴스들의 선전 전략을 살펴보기 위해 기사형태를 분석하여 보았다. 기사형식은 <표-3>과 같이 3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보

편적으로 뉴스형식에서 비중 있는 기사는 리포터 형태의 뉴스로 다루어지고, 특별히 중요한 이슈를 다룰 때는 기획기사, 뉴스가치가 낮은 기사는 스트레이트(단신) 형태로 제작된다. 즉 단일 기사형은 뉴스형식에서 보면 리포터에 해당하고, 주제기사형은 기획기사, 혼합기사형은 단신에 해당할 것이다.

〈표-3〉 대한뉴스의 제주기록의 기사형식

구 분	유형	내용	횟수(비율)
내레이션이 있는 경우	단일 기사형	행위자 우위 구조로 대통령시찰, 장관 내도, 도로 기공 등 인물, 사건을 취재하여 단일기사로 제작	71(71%)
	주제 기사형	상황위주의 구조로 건설의 메아리, 발전하는 제주도 등 특정주제에 따른 여가가지내용을 취재 제작	7(7%)
	혼합 기사형	상황 위주구조로 스포츠, 문화 등 여러 전국기사 속에 제주부분 포함	22(22%)

전체의 기사 중 71%가 단일 기사형로 제작되었다. 단일 기사형은 <표-4>와 같이 대통령 방문이나 고위급인사의 제주방문, 산업건설 비교적 비중 있는 사건들이 행위자 위주의 구조형식으로 다루어진다. 행위자들은 공인의 신분으로 등장한다. 즉 국가 권력을 대표하며, 집단이 테올로기 선전의 성향이 강하다. 뉴스길이도 1분을 상회 한다. 반면 <제주도 횡단도로기공>(40초), <제6회 한리문화제>(25초) 등과같이 상황위주의 뉴스구조는 뉴스길이도 짧을 뿐만 아니라 뉴스 빈도도 낮게 나타난다. 이는 뉴스의 소재의 선택에서도 정부홍보에 치중되었음을 의미한다.



〈표-4〉 단일 기사형 : 이승만 대통령 제주도 시찰 (84호, 1956.05.31)

시간	화면	내레이션
01:15	<p>리대통령 각하                      제주도시찰(자막)                      모슬포비행장 도착                      비행장 환영인과                      꽃다발 증정                      서귀포 환영식                      대통령 연설장면                      환영인과                      목장소떼                      농장시찰                      산방산일대                      천지연폭포                      정방폭포</p>	<p>리대통령 각하께서는 5월 23일 내한 중에 있는 벤 플리트 장군과 미 제8군 참모차장 빅셀 중장을 대동하시고 제주도를 방문하시었습니다. 모슬포 비행장에 도착하신 대통령각하께서는 도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셨으며, 서귀포에서는 환영 나온 군중들에게 서귀포에서 군중들에게 제주도에 꽃나뭇을 많이 심어서 다시없는 환경을 만들어 세계의 유랑객들을 모두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대통령각하께서는 상도리에 있는 목장과 서흥리에 있는 제주농장을 시찰하시었습니다. 그리고 제주풍치의 하나인 천지폭포를 구경하시었는데 지난날 생명을 많이 육성한 제주도는 이제 관광지로서 새로운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p>

주제기사형은 7%정도로 비중이 낮고 상황위주의 기사구조다. 하지만 이데올로기 전파력은 강력하다. <활발한 제주개발>(370호), <발전하는 제주도>(458호), <건설의 메아리>(575호)와 같이 주제를 정해 놓고 관련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취재하여 제작하는 방식이다. 이들 기사는 정부시책과 국정홍보방침에 부합하는 의미 있는 기사들이라 할 수 있다. 국가시책에 대한 성공과 발전적 미래 투자적 상황에 대한 뉴스를 통해 정부는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희망적 미래를 위해 민은 정부에 적극적 협조해야 함을 강조한다.

〈표-5〉 주제 기사형 : 활발한 제주도 개발(0370호, 1962.06.22)

시간	화 면	내레이션
00:15	활발한 제주도 개발(자막) 목장 양떼1, 2 흑돼지1,2	제주도에서는 오늘날 혁명정부의 힘찬 시책에 힘입어 눈부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입지조건이 좋은 제주목장은 확충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동양에서도 손꼽을 큰 목장으로 발전되어가고 있습니다.
00:30	기공식 글씨 주택모형 기공식장면 시멘트공사1,2	그리고 제주도 당국에서는 14년 동안이나 방랑생활을 해 온 43쪽동사건 이재민들이 원주지에 와서 살 수 있도록 집을 짓고 있습니다.
00:40	도로공사 아스콘분사	한편 횡단도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라산 기슭에는 우렁찬 건설이 고동이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01:00	경마출발준비 관객 출발 경마1,2,3,4	그리고 혁명 1주년기념행사의 하나로 경마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100 50마리가 참가해서 저마만의 실력을 겨루었는데 몸은 작아서 보기에 당나귀 같지만은 사람을 태우고 달리는 데는 손색이 없습니다.
01:15	줄지은 해녀들 관객 바다마스게임1,2,3	그리고 해상에서는 흰 유니폼으로 말쑥하게 단장한 해녀들의 마스게임이 벌어져 여러 가지 묘기를 보이면서 남쪽 바다 푸른 물결을 곱게 수놓았습니다.

혼합기사형은 상황위주의 기사형식이 우위를 보이는 단신기사들이다. 이들 뉴스들은 <표-6>과 같이 <토막소식>, <이런 일 저런 일> 등으로 분류하여 소식을 전하고 있다. <해녀잠수대회>(582호), <제주도 감귤잔치>(913호), <제주도 문주란소식>(1397호) 등의 이 유형에 해당한다. 대부분 행위자와 상황의 무관하고 집단적 동기도 취약한 사실 전달의 속성을 보인다.

<표-6> 혼합 기사형 : 이런 일 저런 일(745호,1969.9.25)

시간	화면	내레이션	비고
00:15	이런 일 저런 일 (자막) 수해피해 장면 발전소공사현황도 공사장 모습 1,2	영호남 수해지구를 시찰한 정총리는 이번 수해 피해상황 복구 및 보조를 조속히 지원하라고 박영수 내무부차관에게 지시했으며 또 제주화력발전소 건설현장을 시찰했습니다.	

### 3. 제주기록의 주요내용과 상징이미지의 형성과 변천

대한뉴스의 제주기록의 주요 선전내용은 무엇이고, 제주의 상징이미지는 시대별 변화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를 살펴보기 위해 내러티브 분석을 통해 시대별, 주제별 분류와 주요 이미지를 추출하였다. 시대별 분류는 한국정치권력의 변화가 10년 단위로 맞물려 있어 1950년대(이승만 대통령), 1960년대(박정희 대통령), 1970년대(박정희 대통령), 1980년대(전두환·노태우대통령) 1990년대(노태우·김영삼 대통령)로 구분하였다. <표7>의 주제별 분류에서는 정치·행정, 산업·경제, 사회·교육, 문화·체육, 자연·관광, 국방 등 6개 분야로 분류 하였다. 다만 관광분야는 제주산업구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산업분야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분리하였다. 또한 시대별로 이미지의 빈도와 반복성, 중요도를 고려하여 영상기호학적 상징이미지와 주요 이미지를 <표5>와 같이 추출하였다.

〈표-7〉 대한뉴스의 제주기록의 시대별, 주제별 분류

구분	정치 행정	산업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자연 관광	국방	총
1953~1959	5	4	2	0	3	1	15
1960~1969	6	19	9	12	5	1	52
1970~1979	3	12	3	6	7	0	31
1980~1989	6	7	2	1	16	0	32
1990~1994	3	2	1	2	7	0	15
합계	23	44	17	21	38	2	145
%	16	30	12	15	26	1	100

자료: KTV(www.ktv.go.kr)의 <대한뉴스> 제주기록 109건

\* 한편의 기사에서 복합적 내용이 추출될 경우 복수로 분류함

〈표-8〉 대한뉴스의 제주기록의 주요 이미지 추출

구 분	상징 이미지(지역/산업)	주요 이미지
1953~1959	지역: 천지연 폭포 산업: 목장	천지연, 목장, 전쟁고아, 양떼, 감귤밭
1960~1969	지역: 정방폭포 산업: 수산, 해녀, 목장	정방폭포, 목장, 해녀, 수산업, 횡단도로, 포도당 공장, 어업기지, 고구마
1970~1979	지역: 한라산 산업: 감귤, 해녀, 목장	한라산, 우회도로, 어승생수원지, 목장, 어업, 해 녀, 감귤, 유채, 비행기, KAL 호텔, 한라문화제, 천지연폭포, 정방폭포, 성읍민속마을
1980~1989	지역: 한라산, 유채 산업: 감귤, 해녀, 목장	한라산, 중문관광단지, 감귤가공공장, 돌하르 방, 용두암, 만장굴, 조랑말, 마바나, 국제공항, 여 미지, 초가, 돌담, 신라호텔, 유채꽃, 경마장, 바다
1990~1994	지역: 유채꽃, 한라산 산업: 유채(관광), 감귤, 해녀	유채꽃, 돌하르방, 한라산, 역사, 오름, 한소회담, 아열대식물(종려나무), 신라호텔, 바다, 해수욕 장, 노루

<표-8>에서 보면 제주영상기록들 중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

는 분야는 산업·경제 분야가 30%로 차지한다. 구체적으로는 목축과 수산업, 감귤산업 육성에 대한 부분과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도로개 통과 어승생 수원지 개발 등이다.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설현장의 풍경은 근대화의 결과로 ‘희망’을 창출한다. 1960년대~1970년대 3대 혁명으로 상징되는 도로, 수도, 전기 공사장은 전시적 풍경을 연출한다. 그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이야말로 문화영화의 관객 대중이 본받아야할 모범적 국민상이다.

두 번째로는 자연·관광분야가 2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한 관광산업의 육성은 역대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다. 천지연 폭포와 한라산, 중문 관광단지 개발, KAL 호텔 준공과 신라호텔 등의 모습도 담겨있다. 제주의 자연풍경과 문화풍경, 즐거운 여기문화를 즐기는 행복한 모습으로 카메라의 시선은 맞추어 진다.

시대별로 가장 높은 빈도수가 차지하는 분야를 살펴보면 1950년대에는 정치·행정, 1960년대 산업·경제, 1970년대 산업·경제, 1980년대 자연·관광, 1990년대 자연·관광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정부의 관심사가 50년대는 4·3사건과 한국전쟁 이후의 전후복구 문제, 1960년대와 1970년대는 산업발전과 근대화, 1980년대와 1990년대는 관광산업육성으로 변화됨을 볼 수 있다.

제주관련 대한뉴스의 시작은 “여기는 제주도~”라는 해설로 시작된다. 이 부분에 제주라는 공간을 상징하는 지역 이미지도 시대별로 변화를 보인다. 제주관련 대한뉴스에 나타난 지역이미지는 천지연폭포->정방폭포-> 한라산-> 한라산-> 유채꽃으로 변화된다. 1950년대와 1960년대는 천지연 폭포와 정방폭포가 제주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쓰여진다. 이시기 수용자들은 폭포가 등장하면 공간적으로 제주를 떠올렸을

것이다. 70년대 지역 상징 이미지는 폭포에서 한라산으로 바뀌었다. 반면 폭포는 서귀포의 상징 이미지로 전환됐다. 즉 제주=한라산, 서귀포=정방폭포라는 등식으로 변화된 것이다. 이는 시선과 공간설정의 확장을 의미하며, 제주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어졌음을 의미한다. 1978년 5월부터 흑백화면에서 컬러화면으로 전환되면서 제주의 이미지들도 화려하게 변했다. 1980년대의 제주의 대표 상징이미지는 여전히 한라산이다. 하지만 컬러화면의 영향으로 노란 유채꽃이 ‘아름다운 제주’의 지역 상징 이미지로 부상했고, 돌하르방은 ‘독특한 문화’의 상징 이미지로 작동한다. 여기에 더하여 종려나무와 야자수 등 아열대 식물들은 하와이를 연상케 하는 ‘이국적 신혼 관광지’의 이미지로 제주의 지역성을 구현한다. 1990년대에는 유채꽃이 제주를 상징하는 기호로 작동한다. 유채꽃이 관광이미지로 크게 부각되면서 제주는 ‘노란색의 화사한 국제관광지’로 돋보인다. 이러한 지역상징 이미지는 제주를 어떻게 설명하고 보여주고자 하는가 하는 이미지 전략과 연계된다.

산업적 대표이미지는 1950년대는 목축, 1960년대는 수산업, 1970년대는 감귤, 1980년대는 감귤, 1990년대는 유채꽃(관광)으로 변화된다. 이는 정부가 주목하는 산업이 무엇인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성과를 보인 산업은 어떠한 종목인지를 판별하는 주요 이미지 기호로서 작동한다. 이를 통해 수용자들은 제주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산업에 의존해 살아가는지를 규정해 간다. 각 시대별 주요 이미지들은 희망과 풍요를 상징하는 코드로 읽혀지기를 바라는 선전적 노력이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징이미지들은 자연스러움과 작위성이 공존하며, 정부가 그리는 제주의 풍경으로 작동한다. 수용자들은 이들 이미지들의 상호 작동을 통해 제주의 지역성을 나름대로 규정했을 것이다.

#### 4. 제주관련 대한뉴스의 시대별 정부의 시선과 지역성

대한뉴스에 들어있는 109편의 제주기록들은 1953년부터 1994년까지 정치·행정, 산업·경제, 사회·교육, 문화·체육, 자연·관광 등 다양한 각도에서 소개 하고 있다. 이러한 제주기록은 당시대의 풍경으로 인식하기 쉽상이다. 그러나 과거의 사실적 풍경과 재현된 이미지로서의 영상기록은 서로 많은 차이가 있다.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보여주고자 하는 동기성이라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수많은 사실적 풍경에서 카메라가 선택하는 것은 제작자의 시선이다. 이 시선은 자신이 바라보고자 하는 세상의 풍경만을 선택적으로 포착한다. 이 시선은 생산자 또는 보조자의 관념과 이데올로기를 포괄한다. 따라서 프레임 바깥에 서있는 보조자들(by stander)<sup>11)</sup>의 시선에 대해 분석한다는 것은 제작자에 의해 조작되고 왜곡된 영상정보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숨겨진 정보를 파악하는데 주효하다. 수용자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동기성에 대한 분석은 영상기록과 과거의 사실적 풍경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제작자는 보여주고자 하는 영상은 강조하고, 부각하는 한편 보이고 싶지 않은 영상은 감추어 버리기 때문에 사실적 풍경과 영상자료와는 차이가 존재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았을 때, 대한뉴스의 제주기록에 올바른 인식은 제작자의 시선과 동기를 이해하는 것이다. 모든 영상자료에는 분절적 화면이나 통합적 메시지 속에 이러한 정보가 숨겨져 있다. 따라서 대한뉴스의 제주기록에 담긴 시선을 분석하는 것은 제작자인 권력자와 정부가 제주를 바라보는 시선을 파악하는 일이다. 이는 영상에 대한 독립적 분

11) by stander는 영어적 의미로는 곁에 있다, 지지하다, 보조하다, 돕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의 영상화면의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촬영자, 제작자에서부터 조직, 권력, 문화현상 등 다양한 곁에 서있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친다.

석보다는 문헌연구와 병행했을 때 그 성과 높다.

보여주고자 하는 정보는 미장센분석과 내러티브 분석이 병행되지만 이는 대단히 종합적이고 통찰력 있는 직관이 필요한 주관적 해석이다. 더불어 제주기록의 이미지를 통해 수용자들에게 각인되고 고착화되는 제주의 지역성 역시 중앙정부의 시선이 일정정도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대한뉴스에서는 정부의 시선과 이미지 규정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능동적인 양태를 띤다. 반면 수용자(국민)들의 시선은 수동적이며 이미지 수용 역시 수동적 형태를 띤다.

#### 1) 1950년대 : 피난처에서 이국적 목축의 섬으로

1950년대 제주는 4·3사건으로 폐허의 섬으로 변해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피폐했다. 한국전쟁발발 이후에는 피난처가 되었으며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에는 육군 제1훈련소와 전쟁고아원이 자리 잡고 있었다. 1950년대 대한뉴스에는 모슬포 군용 비행장과 미군장교, 전쟁고아들이 등장한다. 제1훈련소를 거쳐 간 군인들과 피난민, 고아 등 일반 수용자들은 전쟁을 상기하고 피난처로서 제주를 떠 올릴 것이다.

반면 ‘국립제주목장’을 설립<sup>12)</sup>하는 등 이승만 대통령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였던 목장화 사업도 <이승만 대통령 제주도시찰>(84호, 134호, 225호)등에서 수차례 소개된다. 양떼들이 푸른 초원을 누비는 평화롭고 이국적인 목장이미지는 일반 수용자들에게 제주의 미래상을 환상적 이미지로 투사하고 곧 제주의 이미지로 고착되게 한다. 이러한 영상문법은 고난의 현실을 잘사는 미래로 투사되도록 함으로써 지도자의 표상을 이상화하는 전형적 프로파간다 문법이기도 하다.

12) 제주도 공보관실, 『도제 50년 제주실록』, 1997, 나우인쇄출판, 118~119쪽.



1950년대 대한뉴스를 통해 엿볼 수 있는 대표적 시선은 ‘전쟁의 아픔을 딛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해가는 아름다운 제주’로 요약된다. 중심적 지배공간은 서귀포이고 보조적 공간으로 모슬포와 송당 목장이 설정되었으며, 이미지는 전쟁고아, 천지연폭포, 양떼(목장)로 상징화된다. 이렇게 정부에 의해 능동적으로 창출된 이미지는 수용자들에게는 제주가 “혼란과 폐허를 극복하고 양떼들의 초원을 누비는 목가적 풍경”으로 비추어졌을 것이다. 이를 통해 수용자들은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고통 받는 제주의 현실보다는 정부에 의해 형성된 환상적인 모습으로 제주에 대한 지역성을 형성하였을 것이다.

## 2) 1960년대 : 산업 근대화와 해녀의 섬

1960년대 제주도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로건설, 용수개발, 전기가설 등 기간산업 발전이 두드러졌다. 더불어 소득증대를 위한 수산지, 농산지 개발을 추진하였다.

이시기 제주와 관련된 대한뉴스는 박정희 군사정권의 경제개발 정책 및 공업화 정책에 맞춘 건설, 개발소식에 상당 부분 할애 하였다. 총 35편 뉴스에서 19편이 산업, 경제개발 소식을 다루고 있다. <제주도 횡단 도로 기공>(358호), <상수도 공사>(393호), <제주디젤발전소 준공식>(424호), <제주도 어업전진기지 기공 및 준공>(575호, 655호), <서귀포 포도당 공장 건설>(689), <제주화력발전소건설>(745호)과 관련한 영상기록이 그것이다.

1950년대 목축산업을 통한 소득증대를 꾀했다면, 1960년대는 지난정부와 차별적으로 수산업을 통한 소득증대 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쳤다. 이시기 제주관련 대한뉴스의 또 다른 특징은 해녀기사가 무려 6차례 이

상 등장하면서 지배 이미지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산업박람회 개막>(362호)에는 해녀들이 수족관에서 시연하는 장면도 등장한다.

1960년대 제주관련 대한 뉴스는 기간산업 인프라 확장과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의 근대화라는 프리즘을 통해 바라보고 있다. 즉 ‘혁명정부의 지원으로 근대화되고 있는 해녀의 섬’ 요약되는 시선이 강제되고 있다. 공간적으로는 제주시를 지배 공간화하여 성산포항, 서귀포시, 어촌마을이 보조공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생산된 주요 이미지는 횡단 도로건설, 포도당공장, 어업기지, 해녀, 정방폭포로, 이들 이미지는 ‘발전하는 어업기지 제주’라는 지역성을 규정하는 기호로 작동된다.

### 3) 1970년대 : 새마을 운동, 대학나무 감귤 그리고 관광제주

1970년대 제주도는 새마을 운동과 함께 급격한 성장기를 맞는다. 감귤산업의 확대로 농업소득이 증대되었고, <제주도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관광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제주가 기회의 땅으로 부상하게 된다.

이시기 제주관련 뉴스는 마을 취락구조개선, 도로포장, 어승생 수원지 개발과 용수개발 등 각종 새마을 운동의 성과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감귤산업의 급격한 성장도 새마을 운동의 성과로 홍보하고 있다. 대학나무라 불렸을 정도로 고소득 작물인 감귤산업은 보릿고개를 완전히 극복해버렸다. 실제로 감귤재배 면적은 1969년 3,166ha에서 1979년 12,909ha로 10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하였고 조수익도 1969년 634백 만원에서 1979년에는 55,080백 만 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sup>13)</sup>

1970년대는 관광개발 사업이 본격화된 시기다. <박대통령 중문관광

13) 제주도, 『제주도지 2권』, 제주도인쇄공업협동조합, 1993, 703쪽.

단지 개발지 시찰>(1176호)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83억을 투입해 중문 관광단지 등 8개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을 지시했음을 전한다. 중문 관광단지가 제주관광의 메카로 떠오른 것이 이 시기부터였다.

1970년대 대한뉴스의 제주에 대한 시선은 “새마을 운동의 결과 제주 는 감귤산업으로 풍요로워지고 관광개발 인한 기회의 땅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이러한 선전은 ‘발전하는 감귤제주’로 요약되는 지역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했을 것이다. 70년대 지역성을 규정 지을 수 있는 상징 이미지는 도로건설, 변화된 취락, 감귤농장, 칼호텔, 비행기, 유채밭 등이 상호 작동한다.

#### 4) 1980년대 : 아름다운자연, 독특한 문화를 지닌 환상의 신혼 관광지

1980년대 제주의 성장 동력은 관광이었다. 제주를 찾은 내외국인 관광객이 1979년 733,949명이던 것이 1989년은 2,642,613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sup>14)</sup> 이를 반영하듯 1980년대 제주관련 대한 뉴스는 총 32건 중 절반에 해당하는 16건이 자연·관광 관련 뉴스였고, 상대적으로 산업·경제관련 뉴스는 감소하였다.

제주가 국내 유명 관광지로 변모하면서 대한뉴스의 시선 역시 제주의 관광자원에 모아졌다. 대한뉴스는 1982년 <길 따라 풍물 따라>(1370호 ~1373호) 코너에 모두 4차례에 걸쳐 제주도 특집을 편성하여 제주의 관광지와 아름다운 자연, 민속, 특산물을 소개하였다. 이외에도 <중문 관광단지와 여미지 식물원>(1528호), <신라호텔, 신천지미술관, 조각공원 건설>(1642호), <제주경마장 공사>(1754호) 등 다양한 관광시설

14) 제주도, 위의 책, 1047쪽.

을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제주관광 관련 이미지가 전국의 극장가를 통해 상영되면서 제주는 수용자들에게 한번쯤 가보고 싶은 ‘환상의 섬’으로 부상한다. 이 결과 제주는 신혼부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내 최고의 신혼여행명소’로 지역성이 자리 잡게 된다.

종합적으로 1980년대 제주관련 대한뉴스의 시선은 “아름다운자연, 독특한 문화를 지닌 신혼여행지”로 요약된다. 1980년대는 이미지 과잉의 시대로 읽혀질 수 있다. 이 시기 제주를 규정짓는 이미지들은 제주시가지, 중문 관광단지, 감귤농장, 유채밭, 해녀, 돌하르방, 초가, 종려나무도로, 초가, 조랑말, 신라호텔, 용두암, 해수욕장, 신혼부부 등이다. 다수의 상징이미지의 등장은 그동안 고정적이었던 대표 이미지에 대한 강제적 수용성을 분산시키며, 수용자들의 이미지의 수용도 민주적 절차를 거쳐 다양한 지역성을 구현하는데 작동하고 있다.

##### 5) 1990년대 : 세계정상인들이 찾는 아름다운 국제관광지

1990년대 제주는 신혼관광지에서 국제관광지로 변모해간다. 국제항공노선의 증가로 외국인 관광객은 235,075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1990년 관광수입은 총 4,316억 원으로 같은 해 감귤 조수익도 3,151억 원을 웃돌았다.

1990년 1월부터 1994년 12월 13일 까지 제주관련 대한뉴스는 모두 15편이 있었으며, 자연·관광이 7건, 정치·행정이 3건, 문화·체육이 2건, 산업·경제 2건, 사회·교육이 1건순으로 나타난다.

1991년 4월 19일 신라호텔에서 이루어진 한·소 정상 회담은 제주가 세계 정상급 인사들이 찾는 국제적관광지로 알려지는 계기가 된다.

<한·소 정상회담>(1849호)뉴스에서는 노태우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제주중문관광단지에서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개최했는데, 한·소 우호협력조약 체결 합의와 경제협력사업 추진을 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후 1995년 중국 장쩌민 주석 방문, 1996년 미국 클린턴 대통령 방문, 1996년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총리 방문 등이 이어지면서 제주는 세계 정상급 인사들이 찾는 국제적관광지로 부상하게 된다.

1990년대 초반 제주관련 대한뉴스는 제주의 자연과 관광에 대한 시선 외에 타 시선은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대통령 동향이나 정치뉴스도 그리 많지 않다. 1990년대 대한뉴스의 시선은 “자연이 아름다운 제주, 세계정상인들이 찾는 국제 관광지”로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주요 생산 이미지는 한소정상회담이 열린 중문 관광단지, 유채꽃, 한라산, 설경과 노루, 오름, 역사 등으로 지역성을 규정하는데 역할하고 있다.

## V. 대한뉴스의 제주기록과 일상사의 재현

대한뉴스의 제주기록을 통한 제주일상사의 재현은 영상에 투영된 시선과 동기를 인지하는 속에서 영상해석을 통해 이루어 져야한다. 즉 영상기록에 대한 대한뉴스의 상당수의 기록이 과거의 일상과 일정정도 거리가 있는 조작된 이미지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계를 인식하는 것은 옛 사람들이 초상화사진에서 평상의 노동복을 찾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초상화를 찍는 사람들은 일상의 노동복을 벗어 버리고 사진을 찍기 위해 단장하고, 곱게 다려놓은 옷을 가려 입는다. 이처럼 영상기록에 등장하는 사람들이나 사물들도 제작자의 시선과 동기에 의해 일상과 다른 복장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특징의 사물들은 프레임안

에 재배치되고, 치장되기도 한다. 따라서 제주관련 대한뉴스의 영상기록은 정부의 시선과 선전목적에 따라 보여 주고자 하는 사건이나 사물이 극대화 되거나, 특정한 풍경만이 선택되고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프레임 속에 담겨 있는 파편적 정보는 제자리를 찾아 갔을 때 훌륭한 일상사 재현을 위한 정보가 될 것이다. 반면 선전영화라는 닫힌 구조에서 간간히 발견되는 열린 구조의 영상은 일상적 풍경의 재현의 시야를 맑게 한다. 영상자료의 특성을 보았을 때 프레임 안에 정보는 의도된 정보 외에도 의도되지 않은 정보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행위자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구석구석에서 발견되는 제주의 원 풍경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의도되지 않은 정보들로 하여금 뜻밖의 제주의 옛 모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뉴스의 제주기록은 제작자의 시각적 재현과정에서 왜곡의 한계를 인지하고, 분석적 관점을 유지한다면 의도된 영상과 의도되지 않은 영상 모두에서 제주의 일상사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950년대 대한뉴스 <이승만 대통령 제주시찰>(84호)기록에는 모슬포 비행장의 모습과 환영 인파 속에서 고아, 학생, 부녀자와 노인 등 다양한 도민들의 모습이 발견된다. 당시의 현수막과 차량, 간간히 비치는 마을 전경과 도시모습은 제주의 일상사를 재현하기에 부족하지만 절대적인 영상자료들이다. 국립제주박물관의 초기 모습과 개발되기 이전의 천지연폭포와 정방폭포의 모습, 초기의 감귤농장과 관덕정의 모습도 1950년대의 시대상을 반영한다. <제주도 학술조사단>(226호) 뉴스에 등장하는 서귀포 항 부근의 모습과 서귀포 어느 마을의 초가집과 물 허벅을 지고 지나가는 모습, 진료를 받기 위해 줄지은 노인들을 통해 파편적이지만 제주의 흘러간 옛 모습이 재현된다.

1960년대 대한뉴스는 제주의 농촌마을과 어촌마을의 일상사를 살펴 볼 수 있는 영상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상수도 공사 완공>(393호)에서 물을 받기 위해 물허벅을 들고 늘어선 어린이들의 모습과 <제주도 표선리 농협 전분 공장>(708호)에서는 고구마를 수확 장면들은 1960년대 농촌풍경을 재현하게 한다. <빨치잡이>(391호)뉴스는 지금은 사라져 버린 어민들의 어로과정을 역사적으로 증빙하며, 해녀들의 의복들도 오늘날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토막소식-해녀잠수대회>(582호)등장하는 해녀들의 복장은 일상의 해녀복과는 차이가 있는 행사용 유니폼에 가깝다는 점도 일상사재현에서는 고려되어야 한다.

당시 제주도청의 모습과 제1횡단도로, 포도당공장, 성산어업기지, 제주관광호텔, 등 제주근대화 주요 시설들의 모습도 포착된다. 건설도구나 차량, 주민들의 모습도 시대상을 반영한다. <탐라미인선발 대회>(384호), <한라문화제>(598)도 초창기 축제와 행사의 면면을 보게 한다. 제일극장에서 치워진 탐라미인대회선발대회의 수영복 심사모습과 꽃수레 시가행진 모습도 시대상을 반영한다.

1970년대 기록은 오늘날의 마을풍경과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새마을 소식>(913호)에는 서귀포시 월평동 마을도로 공사 작업과 창고 건립 등에서는 70년대 농촌마을의 풍경과 마을풍경이 변화되는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새마을운동의 결과 기간 인프라구축, 주거환경 개선 등 여러면에서 긍정적 발전을 가져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새마을 운동은 대한뉴스에서 제주의 초가집 모습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강제화 했으며, 제주마을의 풍경을 완전히 바꿔 버렸다.

<서귀포 김성보 감귤농가 대통령표창>(0858호), <신효리 감귤재배>(913호) 등에서는 초창기 감귤농장의 조성 모습과 선과 장면 등 농촌생활이 일상사가 담겨있다. 초창기 점보제트기 취항 모습과 이시돌

목장의 양돈장, 성읍민속마을의 풍경들은 오늘날과 비교를 통해 변화상을 실감케 한다. 뉴스에 등장하는 거리의 모습과 사람들, 복식과 차량도 과거풍경을 재현하는데 주요한 정보들이다.

1980년대는 기록은 시대상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파인에 플라 바나나 재배단지, 이산가족찾기, 88올림픽성화 봉송 등은 1980년대에서만 찾아 볼 수 모습들이다. 오일장의 모습, 시가지 전경은 큰 변화는 없지만 오래된 느낌이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포즈로 사진 찍기에 열심인 신혼부부의 모습과 용두암과 만장굴 등 초창기 관광지의 모습등도 80년대의 일상사를 재현하는데 중요한 자료들이다.

1990년대 영상기록은 오늘날과 큰 차이를 느끼기 힘들지만, 90년대에 고착된 이미지들이다. 90년대에 기록된 제주풍광은 먼 훗날 일부는 찾아볼 수 없는 풍광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1954년에서 1994년까지의 제주관련 109편의 대한 뉴스의 영상기록은 제주의 일상사의 재현의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오랫동안 이들 영상자료들은 충분한 역사자료로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체계적 연구대상에서 방치되어 왔다. 이들 영상기록들은 방송에서는 인용하는 과정에서 영상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무분별하게 지난시대의 이미지로 활용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대한뉴스의 제주기록은 재해석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와야 한다.

## VI. 맺음말

대한뉴스의 제주기록은 지난 반세기 동안 중앙정부의 제주에 대한 관심과 시각, 제주의 산업의 변천과정, 일상사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보여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 대한뉴스의 제주기록의 성격은 무엇이고, 주요 내용은 어떠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상징이미지의 시대별 변천상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대한뉴스에 투영된 정부의 시선은 무엇이고, 정부가 영상이미지 기호를 통해 보여준 지역성은 무엇이며, 제주기록의 일상사재현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논의를 정리하면, 첫째, 제주관련 대한뉴스는 사실이 전달과 공익성 추구라는 뉴스의 기능보다는 국가지도자의 역량을 부각시키고, 조국 근대화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며, 다양한 의식계몽을 위한 유사선전물의 형식적 특징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대한뉴스의 제주기록의 영상은 과거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열린 구조의 영상기록이라기 보다는 정부의 시선과 선전 전략에 따라 포장되고 왜곡된 닫힌 구조의 영상기록이다. 그 내용 역시 정권과 정부시책 홍보를 위해 포장되고, 과장된 면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셋째, 대한뉴스의 이미지는 정부의 시선과 이데올로기에 의해 선택된 이미지로서 정부가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대로 제주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주기록은 1950년대는 이국적 목축의 섬, 60년대는 근대화와 해녀의 섬으로, 70년대는 새마을운동의 성공으로 잘 사는 제주를, 80년대는 환상의 관광의 섬으로, 90년대는 국제관광지로 지역성이 강제되고, 보여지도록 만들어졌다.

대한뉴스의 제주영상기록은 정부의 시선과 동기에 따라 과거의 일상과는 일정정도 거리가 있는 닫힌 구조의 조작된 이미지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한뉴스의 제주기록은 제주 반세기의 일상사를 재현하는데 중요한 자료적 의미를 갖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첫째, 대한뉴스는 TV의 등장과 확산이전 기간 동안 제주에 대한 총

체적 영상기록 자료로서는 유일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1954년부터 1994년에 걸친 영상기록 중 1980년대 이전의 제주의 모습으로 살펴볼 수 있는 동영상자료는 약간의 사적인 기록 자료를 제외하고는 대한뉴스의 제주기록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대한뉴스의 제주기록은 1950년대 이후 제주농업을 비롯한 관광산업, 근대화 과정을 시각적으로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셋째, 대한뉴스의 의도된 정보와 의도하지 않은 많은 정보 속에서 제주의 옛 모습과 일상사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 정보는 지나간 현대사의 일상을 재현하는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역사, 사회의 재현의 요소로 영상자료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물음은 궁극적으로 영상자료에 대한 시선을 파악하고, 영상자료에 숨겨진 기호들을 파악하는 일이다. 그 기호들의 작동하는 의미를 통해 사회문화적 현상을 이해하고, 여타의 공식자료와 연관하여 제주의 일상사를 재현하는 일은 본 연구와는 별도로 남겨진 과제라 하겠다.

## 참고 문헌

KTV 웹 사이트 (www.ktv.go.kr)

국립영상제작소, 『대한뉴스 목록, 1953~1979』, 제1집, 1994

국립영상제작소, 『대한뉴스 목록, 1980~1994』, 제2집, 1994

김균·전규찬, 『다큐멘터리와 역사 : 한국TV다큐멘터리의 형성』한울, 2003

김기덕 외, 『우리인문학과 영상』, 푸른역사, 2002

공제욱·정근식 편, 『식민지의 일상, 지배와 균열』, 문학과과학사, 2006

김동호 외, 『한국영화 정책사』, 나남출판, 2005

김동만, “역사재현에 있어 영상자료의 재해석과 활용에 관한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김병철의 옮김, 로버트 스탬의 지음, 『어휘로 풀어보는 영상기호학』, 시각과 언어, 2003

김인식 편역, 『이미지와 글쓰기 : 롤랑 바르트의 이미지론』, 세계사, 1998

김재웅, “한국 문화영화의 제문제 - 제작과 유통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민성욱, “뉴스 영화의 영화관 상영에 관한 연구 - 대한뉴스 관객 여론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박성희, “프로파간다의 문법: 버크의 드라마티즘에 기초한 1960년대 <대한뉴스>의 집단동기분석”, 한국언론학보 53권, 2009

이종수, “영상 다큐멘터리 역사 재현의 현실성과 표현성”, 『한국언론학보』, 제44-3호, 2000

알프 뤼트케 외, 이동기의 옮김, 『일상사란 무엇인가』, 청년사, 2002

정근식·민형배, “영상기록으로 본 왜곡과 진실.” 『역사비평』.no 51(여름), 2000

원우현, 『여론선전문』. 서울: 범문사, 1986

조재홍·홍형숙 옮김, 마이클레비저 지음, 『다큐멘터리』, 지호출판사, 1997

제주도, 『제주도지 2권』, 제주도 인쇄공업협동조합, 1993

제주도 공보관실, 『도제 50년 제주실록』, 나우인쇄출판, 1997

빌 니콜스 (Bill Nichols), 『다큐멘터리 입문』, 한울아카데미, 2005

허은광, “대한 뉴스의 인천기록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인천학 연구 제8호』, 인천학연구원, 2008

Abstract

The Study on the report on Jeju in Daehan(Korea) News

Kim, Dong-Man\*

The numbers of the reports on Jeju in Daehan News reaches 107 from 1954 to 1994. This video recordings cover politics, administration and industry of Jeju including the past of Jeju. Even though the reports on Jeju had been recorded by the view of the government, it has important video material values because it was the official video recording and showed the changes of Jeju society almost for the half century.

Majority of the reports on Jeju in Daehan News were about the livestock farming, fishery, tangerine industry as the industry and economy, paving the road and laying electric wires, etc as the modernization, and the process of the improvement of the tourist industry. In addition, there wre the festivals and daily lives in Jeju.

When I divide the reports on Jeju into every 10 year cycle, the representative images about Jeju in Daehan News had been changed from Cheonji Waterfall, Jeongbang Waterfall and Mt. Halla to rape flowers in times.

The representative industrial images were livestock farming in 1950s, fishery in 1960s, tangerine in 1970s and 1980s, rape flower(four) in 1990s. By these changes of the images, we can consider the policies of Jeju by the government in times. The Creative images were

---

\* Professor Department of Broadcasting

activated to the policy advertisement of the government and helped to define the locality of Jeju directly or indirectly.

It is supposed that the fixed images of Jeju had greatly influenced to the ordinary people who were the audiences of Daehan News for defining the locality of Jeju.

In the meantime, as we can unintentionally find the past of Jeju from the reports on Jeju in Daehan News, these video recordings have important material values to represent the daily lives for the past half century in Jeju.

We can feel the changes of the times as we see landscape of rural areas in 1950s and 1960s, the traditional fisheries and the woman-divers. The very early Halla Cultural Festivals, the parades of the Tamra beauties, the streets and people on the reports and clothes and vehicle are also interesting. These informations from the reports on Jeju in Daehan News will provide important moment to represent the daily lives of the past Jejus modern history.

**Key Words**

Daehan(Korea) News, the reports on Jeju, video recording, image, locality, daily life, representation

■ 부록 : 대한뉴스의 제주기록 목록

구분	호수	제작일	영상 및 내용	비고
1	0084호	1956.05.31	이승만 대통령 제주도 시찰(밴 플리트 미장군 동행)	흑백
2	0093호	1956.10.31	한국 전란 중 8백명의 한국 고아를 제주도에 수송	"
3	0115호	1957.05.26	이승만 대통령 제주도 시찰(정운갑 농림부장관 대동)	"
4	0134호	1957.10.06	농림, 체신 양 장관 제주도 시찰	"
5	0143호	1957.12.08	이승만 대통령 제주도시찰(농림부장관,육군참모총장 대동)	"
6	0225호	1959.08.02	이승만 대통령 제주시찰(내무부장관, 농림부장관 대동)	"
7	0226호	1959.08.09	제주도 종합 학술 조사단 내도	"
8	0304호	1961.03.10	제주도에서 물소작전 기동훈련을 실시	"
9	0331호	1961.09.15	박정희의장 제주도 시찰	"
10	0347호	1962.01.13	제주방송국 서귀포 중계소 개소	"
11	0358호	1962.03.31	제주도 횡단 도로 기공	"
12	0362호	1962.04.28	산업박람회 개막·수족관에서는 제주 해녀들 수영 모습	"
13	0370호	1962.06.22	활발한 제주도 개발(제주 목장, 횡단도로, 경매대회, 해녀)	"
14	0384호	1962.09.30	제주 탐라 미인 선발	"
15	0391호	1962.11.17	제주도 근해, 우도와 비양도 일대에서 빨치잡이	"
16	0393호	1962.12.01	김현철 내각수반 제주도 시찰, 제주도의 상수도 공사 완공	"
17	0424호	1963.07.06	제주 디젤발전소 준공식	"
18	0431호	1963.08.25	목포와 제주도를 왕복하는 여객선 가야호 취항	"
19	0440호	1963.10.26	제주시와 서귀포간 한라산 횡단도로 개통식	"
20	0479호	1964.08.01	차균희 농림부장관 북제주군 신흥리 시찰	"
21	0458호	1964.03.06	제주시의 시민회관 공사, 제주의 야간통행금지 해제 등	"
22	0481호	1964.08.11	서울에서 제주도로 새끼돼지 700마리를 공수	"
23	0493호	1964.11.07	제5회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 개최 -제주도의 민속춤 등	"
24	0517호	1965.04.27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는 제주도 문맹자들에게 교육	"
25	0533호	1965.08.21	제주도 관광호텔에서 박정희 대통령 기자회견	"
26	0567호	1966.04.23	박정희 대통령 제주도 시찰	"
27	0575호	1966.06.14	성산포 어업전진기지의 시설기공식	"
28	0582호	1966.08.05	제주 앞바다에서 다리 기공식	"
29	0598호	1966.11.29	제5회 한라문화제	"
30	0610호	1967.02.18	박정희 대통령 제주도 시찰 - 목장, 포도당 공장 건설 지원	"

구분	호수	제작일	영상 및 내용	비고
31	0647호	1967.11.03	전국 민속경연대회 -대통령상에 해녀놀이(제주)	“
32	0649호	1967.11.17	제6회 한라문화제	“
33	0655호	1967.12.28	성산포 어업전진기지 준공, 제방시설, 냉동시설 등도 준공	“
34	0670호	1968.04.13	구자춘 지사로부터 도정 보고 받는 박정희 대통령	“
35	0689호	1968.08.24	제주도 서귀포 대규모 포도당 공장 건설	“
36	0698호	1968.10.26	제9회 민속예술 경연대회 -국무총리상에 제주 영등굿놀이	“
37	0699호	1968.11.02	제주도 한라문화제	“
38	0708호	1969.01.11	제주도 표선리 농협 전분 공장 준공	“
39	0709호	1969.01.18	제주도 제1회 한.일 친선 수렵대회	“
40	0745호	1969.09.25	제주 화력발전소 건설 현장 시찰과 건설현장 모습	“
41	0751호	1969.11.15	제8회 한라문화제(제주)	“
42	0755호	1969.12.13	제주도 밀감 수확 - 서귀포에 냉동시설 갖춰 밀감 보관	“
43	0786호	1970.07.25	박정희 대통령 제주도 어승생 시찰	“
44	0813호	1971.02.04	제주 우호도로포장 준공식 (제주도청 광장)	“
45	0818호	1971.03.13	박대통령 시찰 - 제주 종합 10개년 계획 자금 지원 약속	“
46	0842호	1971.08.28	이승택 지사로부터 도정현황 보고받는 김승필 총리	“
47	0858호	1971.12.18	대통령, 새마을 지도자 서귀포 김성보씨 국민훈장을 수여	“
48	0913호	1973.01.06	제주도 감귤잔치	“
49	0920호	1973.02.24	박정희 대통령 제주도 시찰 - 관광지역 개발 지시	“
50	0921호	1973.02.28	제주도 북제주군 황새의 모습	“
51	0930호	1973.05.07	교차 활주로 준공 및 여객기 취항식	“
52	0931호	1973.05.12	제주도 -천제연, 정방 폭포, 도로공사, 감귤재배, 목장	“
53	0959호	1973.11.24	제주 제12호 한라문화제	“
54	0972호	1974.03.02	박정희 대통령 지방연두순시(방목, 목장 시찰)	“
55	0972호	1974.03.02	제주도 KAL호텔 준공식	“
56	1008호	1974.11.09	제13호 한라문화제(제주)	“
57	1022호	1975.03.04	제주에 큰눈 - 눈 덮인 한라산, 말, 새들 모습	“
58	1104호	1976.10.19	한라문화제(제주)	“
59	1106호	1976.11.01	제17회 민속예술경연대회 - 제주도의 멀치후리기	“
60	1176호	1978.03.16	박정희 대통령 장일훈 지사 안내로 제주도 순시	“
61	1184호	1978.05.12	제56회 어린이날- 대통령 기차 하사(흑산도, 제주도)	컬러

구분	호수	제작일	영상 및 내용	비고
62	1188호	1978.06.09	박정희 대통령 “항몽순의 비” 제막	“
63	1194호	1978.07.21	천지연 폭포 일대에서 풍란 이식	“
64	1200호	1978.09.02	서귀포에서의 황금 포도재배	“
65	1227호	1979.02.28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 “정의고을” 민속마을로 지정	“
66	1267호	1979.11.30	제20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 제주 불무노래 대통령상	“
67	1280호	1980.03.31	아름다운 우리강산 - 제주도 한라산의 전경, 진달래	“
68	1307호	1980.11.12	전두환 대통령 지방시찰 - 제주도 순시(중문단지 시찰)	“
69	1308호	1980.11.19	제주밀감 - 한라산 전경, 굴밭, 감굴 수확, 선별, 포장, 출하	“
70	1370호	1982.02.04	길따라 풍물따라(제주도) - 용두암, 돌하루방, 설경	“
71	1371호	1982.02.12	길따라 풍물따라(제주도) - 정방폭포, 만장굴, 산방굴사	“
72	1372호	1982.02.19	길따라 풍물따라(제주도) - 성읍리 민속마을	“
73	1373호	1982.02.26	길따라 풍물따라(제주도) - 천지연폭포, 바나나, 파인애플	“
74	1397호	1982.08.12	제주도 문주란, 조랑말, 활짝핀 문주란, 용설란	“
75	1404호	1982.09.30	행글라이더와 붉게 물든 한라산 계곡의 단풍, 운해	“
76	1435호	1983.05.07	전두환 대통령 제주도 순시- 중문관광단지 개발 현장 시찰	“
77	1448호	1986.08.05	피맺힌 사연들(이산가족찾기) - 제주 오빠 상봉(TV)	“
78	1468호	1983.12.24	제주 국제공항 준공	“
79	1470호	1984.01.06	제주 해녀들 소리 등 해산물을 채취(성산 앞바다)	“
80	1478호	1984.03.02	전두환 대통령 제주도 순시	“
81	1496호	1984.07.06	제주도 정방 폭포, 천지연 폭포	“
82	1527호	1985.02.08	장병구 제주도 지사 업무계획 보고	“
83	1528호	1985.02.15	장병구 제주도 지사 업무계획 보고 - 지시(투표결과 승복)	“
84	1571호	1985.12.13	한라산 설경 - 나무가지 위에 수북히 쌓인 눈	“
85	1585호	1986.03.21	장병구 지사 업무계획 보고 -(관광교육장이 되도록)	“
86	1626호	1987.01.09	제주 해녀 - 해녀들, 제주 감귤단지, 감귤 수확	“
87	1632호	1987.02.18	제주도 풍경 - 초가집, 돌담, 하루방 등, 제주 5일장 스케치	“
88	1642호	1987.04.29	북제주군 애월읍 “신천지 미술관” 개관	“
89	1642호	1987.04.29	제주 조각공원 건설	“
90	1692호	1988.04.13	제주 유채 꽃 스케치	“
91	1692호	1988.04.13	서귀포 법화리 어촌계 해녀들	“
92	1705호	1988.07.13	조랑말(제주도) - 종족보존, 관광용, 경주대호, 경마장 공사	“



구분	호수	제작일	영상 및 내용	비고
93	1712호	1988.08.31	성화는 서울로 - 제주 도착, 성화 점화, 제주 일주	“
94	1736호	1989.02.15	제주도의 풍물 - 수중해저 관광 (서귀포), 해녀	“
95	1754호	1989.06.21	제주 조랑말 (북제주군 애월읍 금덕리 제주 경마장)	“
96	1796호	1990.04.11	봄의 환타지 - 제주도 유채	“
97	1798호	1990.04.24	해저 광 케이블 준공식	“
98	1808호	1990.07.04	제주 경관	“
99	1828호	1990.11.21	제주 가을 꽃	“
100	1846호	1991.03.27	열기구 대회 (제주 중문단지)	“
101	1848호	1991.04.10	한.소 정상회담을 제주도에서 개최 (91. 4.19)	“
102	1849호	1991.04.20	한.소 정상회담 (노태우, 소련 고르바초프 대통령)	“
103	1856호	1991.06.05	LA, 제주 회담	“
104	1909호	1992.06.10	신기술 개발로 농가소득증대 (국화 단경기 축성재배)	“
105	1911호	1992.06.24	제주 고층 레이다 기상대 및 위성사진 분석 (기상청)	“
106	1946호	1993.02.26	봄이 오는 길목 (한라산)	“
107	1994호	1994.01.26	월드컵 - 대표팀 해변구보, 운동장 훈련, 산악 행군	“
108	2007호	1994.04.27	제주도 한라산의 봄 - 유채꽃, 백록담 부근의 야생노루	“
109	2028호	1994.09.16	토종을 지키는 사람(제주도 조랑말)	“

교신 : 김동만 690-804 제주시 노형동 1534  
 (E-mail : kdm@hc.ac.kr 전화 : 010-3697-0609)

논문투고일 2010. 06. 30.

심사완료일 2010. 07. 22.

게재확정일 2010. 08. 10.